

바울은 독신을 선호하였습니까?

● 결혼(Marriage)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 인류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창조자께서 예비하신 규례(창1:27-28; 2:18-24).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기초가 되며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을 조장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미덕과 부지런함과 명예와 바른 습관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모든 것을 갖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일부일처 제도를 확립하셨다(말2:15).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다처제를 실행한 인물이었다(창4:19-24).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았다(창6:2). 한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한 아내만을 두었다. 욥도 한 아내만을 두었으며 나훔, 롯,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한 아내만을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다처 제도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 되었고 성경은 이런 악습의 결과로 인한 폐해를 잘 보여 준다.

창16:7-16의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엘

삿8:30 기드온의 많은 아내 70명 아들,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69명을 한 돌 위에서 쳐 죽임
삼하3:3-5 다윗의 많은 아내, 아들들, 여러 아내의 아들들로 인한 문제

왕상11:1-8 솔로몬, 왕비 700명, 첩 300명, 하나님을 떠나 이방 잡식들을 섬김

대하11:18-21; 13:21, 르호보암, 아비야 등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일부다처제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다.

현시대 동성애 합법화, 미국 대법원의 결정

그 이후 가장 큰 이슈: 일부다처제, 왜 동성애만 합법이나? 일부다처제도 OK

이스라엘 자손은 결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각종 음행과 간음 처벌 규정 레18, 20; 신27:20-23).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숭배자들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출34:16) 후에는 그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 특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느 13:23-29). 또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는 경우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녀가 처음 낳은 아들이 전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하는 법규가 있었다(창38:1-30; 신25:5-10; 마22:23-26).

형사취수 제도

우리 주님 역시 결혼이 가장 성스럽고 영원한 제도임을 확실히 보여 주었고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금하시고(마5:32; 19:3-9) 결혼 서약을 파괴시키는 일 - 심지어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마 5:28) - 을 책망하셨다(히13:4; 계21:8).

한편 천주교회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 즉 결혼에 불명예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독신을 장려하고 신부와 수사와 수녀에게 종신 독신을 부과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르치고 있다. 실로 이렇게 결혼을 금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말세의 일 중 하나이다(딤후 4:3). 결혼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변함

바울의 결혼관(고린도전서 강해 10과)

고린도전서 7장은 주로 결혼 문제, 바울은 결혼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준다.

그런데 7-8절은 독신 선호 사상으로 비쳐진다.

여기서 조심할 것: 바울의 대답은 그 당시 교린도 교회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네로가 황제가 되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 함(26절, 29-31절). 재림의 임박성, 그 결과 독신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함(7-8절).

그러나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딤후4:1-4; 5:14; 히13:4).

일단 성경 전체 조명: 사람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결혼해야 한다(창1:26-28; 2:18).

1. 사도 바울은 지금 독신이다. 그러면 그는 결혼한 적이 있을까?
결혼한 적이 없다면 결혼에 대한 대답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버논 맥기 박사의 주장: 하나님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써서 중요한 문제를 답하게 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7절에 근거해서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러나 8절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다. 여기에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unmarried)과 과부들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unmarried)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자들인가?

그리스어 아가모스(agamos): 7:11에도 나온다, 결혼 사람이 배우자를 떠난 뒤에도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는 것을 '아가모스'로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어 아가모스(agamos)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되고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헤어짐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된다.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8), 문맥상, 홀아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고전7:8을 보면 남자 복수행26장의 산헤드린 회의(12절), 바울은 여기서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다. 멤버가 되려면 결혼해야만 한다.

유대인 청년들은 18세까지 결혼할 것을 중용받았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른이 아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빌3:5), 전통에 열심(갈1:14; 행22:3)

고전9:5, 엡5:25, 31-32의 표현

여러 주석가들이 결혼과 사랑에 대한 그의 글들을 볼 때 그가 결혼했으나 아내가 일찍 죽었고 그는 다시 장가가지 않은 것으로 봄.

7절: 바울은 지금 독신 상태, 자기와 같기를 원하였다. 그럼에도 사람마다 고유한 선물이 있다.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마19:12). 초기 기독교에는 결혼을 영적 방해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독신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이다. No!" 중세에는 독신, 빈곤 등을 강조하는 수도사들이 있었다. No good.

8-9절: 다시 한 번 독신 언급. 1절의 원리 반복, 그럼에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라.

2. 왜 독신으로 지냈을까?

그는 전 삶을 주님을 위해 쓰기를 원하였다(딤후2:3-4; 고전9:6-19)).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만 적용된 특별 상황이다.

3.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전7:2, 9절이 적용된다.

다만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도 된다.